

2025

ARTS &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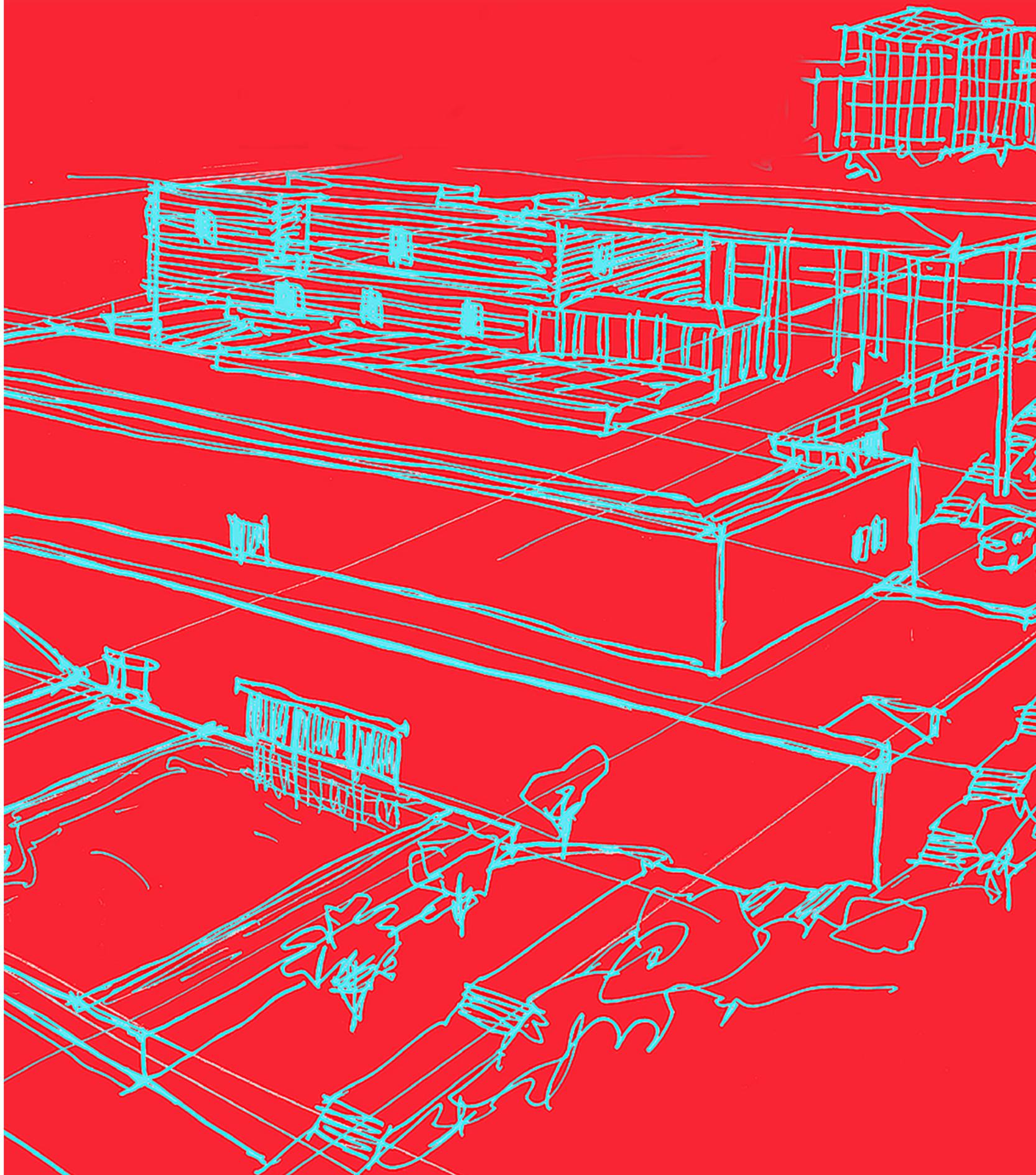
경주유치

대구간송미술관 간송의 유일한 상설미술관

간송 전형필이
환신의 열정과
우리의 고귀한
미술&문화유산

관련기사 2면

대구간송미술관은 중남부권 관람객들에게 다가가는 간송의 유일한 상설미술관이다.
1938년 보화각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한 서울 간송미술관의 첫 분관 지하 1-지상 3층 연면적 8003㎡이다.
대구간송미술관은 안동 도산사원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은 최문규 건축가의 역작이다.
모두가 간송 전형필이 환신의 열정과 우리의 고귀한 미술이자 문화유산이다.
이 취지를 함께 누리자는 뜻으로 전시명을 여세동보(與世同寶)로 했다.
보화각 마릿들에 새겨진 오세창(1864~1953년)의 글귀로 "세상함께 보배 삼아"라는 뜻이다.
전시장에는 간송미술재단 소장 국보보물 40건 97점이 전시돼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미인도를 비롯한 국보와 보물 및 간송의 유적이 전시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9년만에 세상밖으로 나온 대구 간송미술관...

자연과 어우러지는 가장 한국적인 미술관 대구의 새로운 문화예술 대표... 시립미술관 13년만 건립 사업비 446억 예산 투입

대구 간송미술관은 서울 간송미술관의 첫 분관이다.

중남부권 관람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상설 전시관 역할을 한다.

개관전인 '여세동보'에는 그동안 서울 보화각에만 머무른 국보와 보물을 볼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미인도를 비롯한 국보와 보물 및 간송의 유작이 전시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 간송미술관 개관기념 전시 '여세동보'에는 국보와 보물급 지정 문화유산 40건 97점과 간송 유작 60점 등 157점이 전시된다.

일제강점기 간송 전형필 선생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회화, 도자기, 서적 등을 수집한 간송 컬렉션이다.

대구 간송미술관은 "소장한 모든 국보가 나오는 전시"라는 처음이라 대구 간송미술관의 대표작들을 보여주는 일종의 인사 같은 전시라고 개관기념전을 설명했다.

4개 전시실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한글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기록한 국보 훈민정음해례본은 '소리로 지은 집' 전시실에 별도의 공간이 마련됐다.

가치를 따질 수 없다. '무가지보'로 불리는 간송미술관 최고의 소장품, 훈민정음 해례본이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윤복의 미인도도 제2전시실에 별도로 전시됐습니다. 한 사람씩 들어가 관람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꾸며진 전시실은, 소수 인원이 독대하듯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고려의 유연한 선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국보 청자상감운학문매병과 추사 김정희 난쟁첩 등의 서예 작품, 홍도의 마상청앵 등 조선 3대 풍속화가 대표작도 만날 수 있다.

대구간송미술관이 지난 3일 문을 열었다.

9년의 준비를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온 셈이다.

'국채보상운동'의 시작점이자, '한국 근대미술의 발상지'인 대구에서 간송미술관은 새로운 출발을 한다.

2016년 간송미술문화재단과 대구광역시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미술관 설립을 추진, 2022년 1월 착공했다.

총 사업비 446억 원을 들여 올해 4월 준공된 대구간송미술관은 연면적 8003㎡ 규모로 △지하 1층 전시실(국) 및 수공간(야외) △지상 1층 전시실(4곳)과 보이는 수리복원실, 간송 아트숍, 강당 및 휴게시설 △지상 2층 대표소와 아카이브(도서관), 강연실, 박석마당(야외) 등을 조성했다.

오랜 기간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개관을 맞은 대구간송미술관은 간송 전형필 선생이 문화보국 정신으로 수집한 문화유산과 그 가치를 소개한다.

우리문화와 전통에 대한 현재적인 담론을 지역, 세대의 경계를 넘어 미래세대와 함께 풀어나가는 미술관으로 운영된다.

대구간송미술관은 간송미술문화재단의 유일한 상설 전시공간으로 간송미술관이 지난 50년 동안 다뤄왔던 다양한 콘텐츠와 연구 주제를 토대로 다채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으로 새로운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등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가치확산에 기여하고, 대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남부지역에 문화적으로 공헌하는 미술관으로 거듭난다.

국보·보물 40건 97점 역대 최대 규모

대구간송미술관은 개관기념 국보·보물전(여세동보(與世同寶) - 세상 함께 보배 삼아)를 3~12월 1일까지 연다.

'여세동보(與世同寶)'는 위장 오세창(吳世昌, 1864~1953) 선생께서 보화각 설립을 축하하며 지은 정조명(定礎銘)에서 빌려온 것으로 '세상 함께 보배 삼아'라는 뜻이다.

간송이 문화보국 정신으로 수집한 문화유산들을 세상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개관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전시 제목으로 삼았다.

전시는 특정한 주제를 정하고 작품을 소개하기보다는 작품 하나하나가 보배라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총 4개의 전시실을 마련하고 실별로 차별화된 공간을 구성했다.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청자상감운학문매병'(국보), 신윤복의 '미인도'(보물)를 비롯해 간송 컬렉션을 대표하는 국보와 보물 40건 97점이 전시된다.

간송미술관이 개최한 역대 전시 중 최대 규모의 국보와 보물이 출품되는 전시이다.

조선 문예를 대변하는 전적(典籍)

전시는 간송 전형필이 비교적 초창기에 수집한 회화로 시작한다.

검은 비단에 금니(金泥, 아교에 개어 만든 금박 가루)로 그린 이정의 대나무 그림을 비롯해, 정선·심사정의 산수화, 김홍도의 고사인물화, 신윤복·김득신의 풍속화 등 다양한 장르의 회화작품이 소개된다.

'금보(琴譜)(보물) 등 조선의 학술과 문화를 대변하는 세 권의 책도 함께 전시된다. 출판자들은 조선시대 문화와 예술 전반을 조망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이자 국가적 유산이다.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고미술품을 꼽는다면 신윤복의 '미인도'가 빠질 수 없다.

이번 전시에서는 '미인도'를 특별한 방식으로 만나게 된다.

오직 '미인도'만을 위해 조성된 별도의 공간에서 소수의 인원이 독대하듯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특별히 연출된 조명과 음악은 작품을 감상하는 내밀한 분위기를 제공, 부가적인 설명과 안내 대신 작품 속 제하시와 인장만을 감상과 이해의 소재로 제시했다.

누구나 사랑하는 작품이지만 자신만의 특별한 감상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훈민정음 해례본: 소리로 지은 집

한글의 창제원리와 용례를 담고 있는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훈민정음 해례본'이 전시된다.

'훈민정음 해례본' 진본이 공개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간송미술관 외부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전시됐던 것이 전부이다.

전시에서는 현대미술 작가와의 컬래버레이션으로 훈민정음이 가지는 애민정신을 강조하고 문자에 대한 배리어프리를 확장하고자 했다.

신체적인 장애, 문화적인 차이, 환경적인 특수성을 가진 분들의 훈민정음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청각장애인, 다문화가정, 성인 문해 교육생, 북배경주민 등이 참여한 3점의 미디어 작품이 훈민정음 해례본과 같이 전시된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에 걸친 송고한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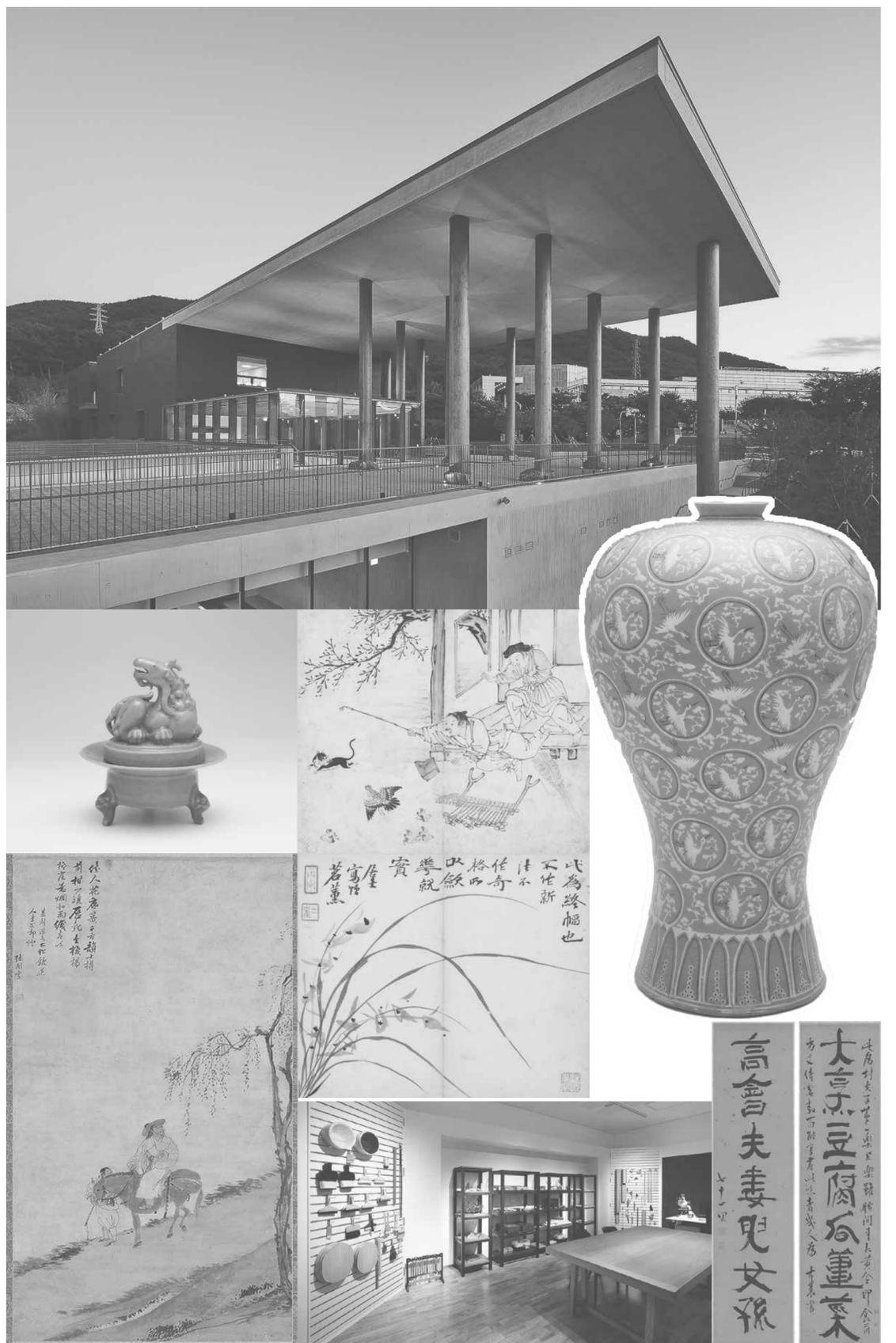
삼국시대부터 조선에 걸친 불교미술과 도자기, 그리고 서예 작품들을 전시한다.

전시실의 초입에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와 그림이 설치되는데 '난쟁첩(보물)의 묵란화 네 점과 추사체의 정수를 보여주는 서예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서예 전시를 지나면 간송의 컬렉션을 대표하는 '청자상감운학문매병'(국보), '백자청화철채동채초충난국문병'(국보), '청자상감연지원앙문정병'(국보)을 감상하게 된다.

유려한 곡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병(甁)류 이외에도 '청자기린유개향로'(국보), '청자오리형연적'(국보), '백자사옹원인'(보물) 등 다양한 쓰임을 위해 섬세하게 제작된 각기 다른 형태의 도자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실감영상전시 '흐름·The Flow'는 정선, 김홍도, 신윤복, 이인문 등 조선화단을 대표하는 화가들의 작품을 재구성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지나가는 하루의 시간을 영상으로 담아냈다. 약 38미터의 반원형 스크린을 통해 펼쳐지



는 영상은 원작의 아름다움은 물론 큰 스케일의 화면이 주는 현장감과 몰입감을 선사한다.

간송의 면모를 만나다

연구자·예술가·교육자로서 간송의 면모를 보여주는 유작 26건 60점을 만날 수 있다.

'이현서옥(梨峴書屋)', '옥정연재(玉井研齋)', '보화각(葆華閣)' 총 3개의 구역으로 실내 공간을 구성했다.

각각의 공간에서는 간송의 삶과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작품과 영상이 펼쳐진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11월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입장은 전시종료 한 시간 전인 오후 6시에 마감된다.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과 추석 당일은 휴관한다.

관람예약을 인터파크 티켓에서 할 수 있다.

성인(20세~64세) 1만 원, 어린이·청소년(8~19세 이하) 5000원이다.

증빙서류 제출 시 단체 할인 및 특별 요금도 적용된다. (문의 1544-1555, 053-793-2022)

대구의 새로운 문화예술 랜드마크

대구에 새로운 시립미술관이 건립되는 것은

2011년 대구미술관 개관 이후 13년 만이다.

대구광역시는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해 2020년 국제 설계공모를 했다.

세계 유수의 건축가들이 응모한 가운데 연세대학교 최문규 교수와 ㈜가이건축사사무소가 응모한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대구간송미술관 설계에는 간송의 문화보국 정신과 자연과 어우러지는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

설계를 담당한 최문규 교수는 가장 암울했던 시기 시대적 비극을 이겨낸 간송 전형필 선생의 굳건한 정신과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송고한 신념을 미술관 입구 아름다드리나무 기둥과 미술관 곳곳에 위치한 소나무를 통해 표현했다.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구현하기 위해 계단식 기단, 티의 분절 등 전통 건축요소를 접목하고 예부터 사용해 온 재료를 사용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했다.

팔공산, 대덕산을 품고 있는 박석마당과 한국적 정원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수공간을 더해 가장 한국적인 미술관을 구현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우리가 지켜온 문화유산과 정신문화를 건축물로 표현하고,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건축, 후대에 남길 수 있는 건축물

로 대구를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권 지류문화유산 수리복원 허브'

대구간송미술관은 간송미술관이 반세기 이상 축적한 지류문화유산의 수리복원 기술과 노하우를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 활용한다.

'영남권 지류문화유산 수리 복원 허브'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간송미술관이 가진 문화유산 수리와 보존, 그리고 연구에 대한 오랜 현장경험을 유림(儒林)의 본고장인 대구·경북과 영남지역을 위해 활용한다.

미술관 1층에 위치한 '보이는 수리복원실' 운영을 통해 관람객이 실제 수리복원에 사용되는 도구와 재료, 수리 복원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 학예사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지류 문화유산 수리복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관람객에게 제공하게 된다.

대구간송미술관은 지역민들이 우리 문화를 쉽게 향유할 수 있고 문화보국 정신을 연결·확장하는 공간이다.

유소년과 청소년 시절부터 어르신 세대에 이르기까지 스스럼없이 찾아와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미술관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조미경 기자

경북도, 89곳 의료기관 매년 95억 10년간 950억 투입

산부인·소아과 어디서든 1시간
저출생 극복 산모 아이 365일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 의료환경 전폭개선
데이터 기반 저출생 전략추진
활성화 따른 '업무협약' 체결...



경북도가 의료환경을 전폭 개선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산모와 아이가 365
일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
련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북도·동북지방통계청, 데이터 기반 저
출생 전략추진 활성화 업무협약도 맺었다.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력투구
하고있는 셈이다.

경북도 복지건강국은 4일 도청 브리핑
룸에서 1시간 이내 필수의료 서비스를 목
표로 진료체계를 마련 한다는 내용을 발
표했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도내 산
부인과·소아과 진료 환경이 새롭게 만들어
져, 의료 불균형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1시간 진료체계 구축

도는 도내 산부인과와 소아과 필수의료
의 접근성을 개선, 의료 불균형 해소를 목
표로 산부인과·소아과 1시간 진료체계 구
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국에서 가장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
중 하나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산모·신생아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증
가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산부인과와 소아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
의 접근성 부족은 큰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 전역
에서 1시간 이내에 산부인과와 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공공-민간 의료기관의 협력을 통
해 도내 산모와 아이가 신속하게 필요한 의
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공공의료기관 21곳, 민간의료기관 62곳,
중증·응급 진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6곳 등 총 89곳 의료기관에 매년 95억원으
로 10년간 950억원을 투입한다.

■민간의료기관 협력체계 강화

공공의료기관 21곳에 산부인과·소아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인력 확보에 21
억원을 지원한다.

올 하반기 △청송군 산부인과 △울릉군
소아청소년과 신설 △의성·봉화군 산부인과,
소아과 야간 연장 진료 △포항·김천의
료원 소아과 진료기능을 높이기 위해 우선
지원한다.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산부인과와 소아
과의 연장·순환진료를 위해 도내 62곳에 1
억원씩 62억원을 지원한다.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산부인과·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순환 진료체계를 마
련한다.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도 산모와 아이가
적시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충분한 재정
적 지원으로 의료기관이 진료시간을 연장
하거나 순환진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비용을 지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한다.

■중증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 시스템 구축

중증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위한 집중 치
료를 위해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계
명대 동산의료원, 영남대의료원, 대구가톨릭
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에 12억원을 투
입한다.

특중증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는 치료 시
기를 놓치면 생명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들의 치료를 위한 전담 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이다.

환자들이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고난이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의 연계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전담 코디
네이터를 배치한다.

골든타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
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도는 지역의 필수의료 체계를 획
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국
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과 주요 병원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북도 공공보건의
료 협력강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의료인력 파견을 통한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 전문성과 진료 프로
세스를 높여 나가고 있다.

산부인과·소아과 1시간 진료체계 구축을
통해 진료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무엇보다 의료 취약지역의 산모와 아이
가 더욱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 장기
적으로 지역의 필수의료 체계는 보다 견고
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전하고 신속
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노력한다.

■저출생과 전쟁, 데이터로 승부

도는 동북지방통계청과 손잡고 실증 데
이터 기반 과학적인 저출생 극복 전략을 마
련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4일 경북도청에서 김학홍 경북도 행
정부지사, 송성현 동북지방통계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 기반 저출생 전략추
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중앙과 지방이 데이터에 기반한
저출생 전략추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과
학적인 저출생 극복 전략마련을 위해 양 기
관 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한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저출생 정책 관
련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활성화 △저출생
정책 관련 신규 통계개발 및 기술지원 △저
출생 정책 관련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 등이다.

협약에 따라 동북지방통계청은 인구·가
구, 혼인·출생, 양육 및 가정생활, 가족정
채, 청년 등 5개 영역 관련 통계 자료를 분
석한다.

전국 및 타 시도와의 비교를 통해 경북도
의 현 상황을 데이터로 진단한다.

도는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저출생 관
련 마이크로 데이터 등을 가공 분석해
100대 실행 과제 사업 효과성, 재원 배분
효율성, 재정 지속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저출생 정책의 도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데이터 기반 정책 마련 및 정책 모니터링하
고, 정책환경 변화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기능도 강화한다.

11월에는 데이터 기반 '경북지역 저출생
과 사회변화' 기획 등 저출생 관련 통계 자
료를 분석해 저출생 전략을 체계화한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동북지방통계청
의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활용 기법을 기
반으로 경북도 저출생 전략을 추가 마련하고
기존 대책은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 분야를 시작으로 향후 경북
도에서 마련하고 시행하는 정책은 과학적
인 데이터를 가지고 도민들이 만족하는 실
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성현 동북지방통계청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경북도가 추진 중인 저출생 극복
정책이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기
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지역
통계 발전을 위해 경북도와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7월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와
동북지방통계청은 실무회의를 가지고 경
북도 저출생과 전쟁 필승에 필요한 저출
생 관련 79개 통계 데이터를 제공, 저출
생 극복 정책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성용 기자



더 두렵게 더 든든하게~ 경북 어디서든 1시간에 전부 해결 !!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 연장·주말·공휴일 순환 진료까지 -

총 89개소 참여 |

산과 진료기관 32개소 + 소아과 진료기관 51개소 + 상급종합병원 6개소

공공(8), 민간(24) 공공(13), 민간(38)

공공 : 21개소 민간 : 62개소

대구경북지역 상급종합병원 (6개소)

KNUH 경북대학교병원, YU MC 영남대학교의료원, KNUH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파티마병원

경북시립의료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정한 슬로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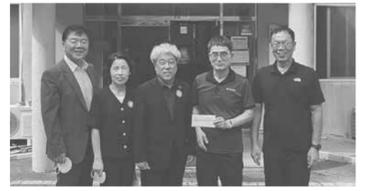
市 간부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경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고 나눔 분위기를 확산한다. 시는 오는 13일까지 시장, 부시장을 포함한 국소본부장, 읍면동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세대를 대상으로 위문을 진행한다. 시장, 부시장, 국소본부장은 노인·장애인·아동 등 1100여 명이 거주하는 38곳 사회복지시설

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한다.

읍면동장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등 8460세대를 직접 찾아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간부 공무원들은 위문품 전달뿐만 아니라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불편 및 개선 사항도 수렴해 민생안정 대책에 반영한다.



시민건강과 민생우선... 추석명절 종합대책 마련

연휴 5일간 11개 반·170명 편성 감염병 대응 비상방역대책반 운영 물가 합동지도·점검반 편성 활동

경주시가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응급의료 및 감염병 비상방역 체계 확립 △서민경제 안정화 △안전한 관광·교통 대책 △생활안정 대책 △재난안전관리 강화 등 5개 분야에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먼저 시는 감염병 대응 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해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나선다.

응급상황을 대비해 응급의료센터 2곳과 병·의원 35곳, 한의원 2곳, 약국 108곳을 지정해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명절 전후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물가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성수품 16종을 중점 관리한다.

또 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장보기와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이어진다. 농수산

물은 경주물 온라인에서는 20%, 경주농산물 물판매장(본점, 불국점)에서는 각각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경주천년한우는 최대 23% 저렴하게 판매하며, 감포공설시장에서는 어서읍소 수산물 할인 행사로 최대 1만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연휴 전 다중이용시설과 공사 현장, 교통 편의시설 등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재해 상황실을 운영해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연휴기간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개방되며, 중앙·성동시장 주변도로는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황실 및 기동 청소반을 상시 운영한다. 생활(음식물 포함) 쓰레기는 15일, 17일(추석 당일) 수거하지 않으며, 이외 14·16·18일은 정상 수거한다.

급수대책도 마련했다. 응급복구 기동반을 편성해 수도관 파열과 단수 사고의 경우 신속한 대처에 나선다.

주낙영 시장은 "시민과 귀성객,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코딩활용능력 자격시험 응시생 전원 합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중등생

경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중등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코딩활용능력 자격시험에서 응시생 전원 합격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된 시험에 중등 2학년 청소년 14명(2급 4명, 3급 10명)이 응시해 전원이 합격하는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YBM IT사가 주관하는 코딩활용능력(COS) 시험은 높은 수준의 프로그래밍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 시험이다.

이번 시험은 경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된 '창의 과학'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배경해 경주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모든 청소년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2025년부터 초등교육과정에서 코딩

교육이 의무화될 정도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적 수요에 맞춘 활동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성장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경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참가 청소년들이 미래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코딩교육 외에도 △드론동아리 활동 △3D펜 활동 등 다양한 4차 산업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조량 부족 농작물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국비 3억원 포함 총 4억여원 규모

경주시가 올해 초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조량 부족으로 안감읍을 포함한 14개 읍면동 지역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일조량 부족으로 작물 광합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경 불량, 품질·수량이 감소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 3월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품목별 지역별 피해 현황을 접수하고 경북도와 함께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피해를 농업재해보험정방을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해당 농작물 피해가 농업재해보험 인정되면서 시는 지난 4월 지역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현장 정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사 결과 경주지역 일조량 부족 농산물은 전체 267농가, 약 157ha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추(72ha)가 46%로 피해가 가장 컸으며, 토마토(47ha, 30%), 딸기(21ha, 13%)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농업재해 복구를 위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국비 3억원을 포함해 총 4억3000만원 규모다.

차매안심센터, 보건복지부 평가 A등급 획득

경주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1주기 차매안심센터 운영 평가'에서 도농복합시 유형 가운데 A등급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차매안심센터 운영 평가는 제4차 차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차매안심센터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전국 256개 차매안심센터를 5개 지역유형(특별시 25곳, 광역시 47곳, 일반시 32곳, 도농복합시 73곳, 군 79곳)으로 나눠 서면평가, 현지평가,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는 A등급(상위 10%), B등급(중상위 40%), C등급(중하위 40%), D등급(하위 10%)로 나눠진다.

경주시는 도농복합시 유형으로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지역 차매 역량강화 등 3가지 평가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A등급(상위 10%)으로 선정됐다.

진병철 경주시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노령인구의 증가에 대비해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경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관 합동 물가대책 실무위원 회의

경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주세무서, 농축수산물 관련 유관기관, 개인서비스업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 명절 대비 민·관 합동 물가대책 실무위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명절 대비 성수품 가격 안정과 지속적인 고물가 상황에 따른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과 전망을 논의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조 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착한가격업소 이용, 가격 표시제, 불공정 거래 행위방지 등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주시는 추석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물가안정 지도·점검반을 운영한다.

市-대한웰다잉협회, 협약

경주시와 대한웰다잉협회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주시 보건소와 대한웰다잉협회 경주지회는 지역사회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시 보건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진병철 시 보건소장과 김순옥 대한웰다잉협회 경주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웰다잉 교육 및 홍보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윤용찬 기자/사진=경주시 제공

Advertisement for 'Farming' (농업) with a large graphic and text. It includes details about land acquisition, eligibility criteria,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FBO (Farmers' Business Office).

청도군 풍각면, 어르신들 생활용품 만들기 활동

청도군 풍각면은 지난 3일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비전교육원 원장 이지은 씨가 풍각면 봉기 1리, 현리리 어르신들과 함께 점심과 머그컵 만들기 활동을 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

다. 이날 행사는 한국비전교육원 도희정 간사와 함께 마을 어르신들 약 20명이 참석했으며, 도 자기 점심과 머그컵을 직접 만들면서 차예배 활동과 더불어 숨은 재능을 드러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 이지은 한국비전교육원장은 꾸준히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지난해 선 풍기 기탁에 이어 올해도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나눔 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조여은 기자



김천복지재단, 맞춤형 후원 결연으로 사각지대 '최소화'

시민 참여 15억원 규모 후원품 모금 MOU 체결과 기부자 지정기탁 결연 김천복지재단 2024년도 이사회 열어 김충섭 이사장, "적극적인 참여 당부"

김천복지재단에서는 지난 2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제2대 이사회 임원 임명식' 및 김천복지재단 '2024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 앞서 지난 제2차 이사회에서 선임된 임원 8명에게 임명장 수여가 있었고, 임기는 2024년 9월 2일부터 2027년 9월 1일까지이며, 이어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이사장 선출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5년 재단 사업으로는 복지자원발굴 및 연계협력사업, 김천형 SOS 긴급지원사업, 희망복지공동체지원사업, 후원결연사업, 재해·재난구호사업, 지역청년 인재육성사업, 간병비지원사업으로 총 7개 사업을 운영하기로 의결했으며, 추가로 재단 운영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나

눴다. 제2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충섭 이사장은 "김천복지재단이 여러 가지 면모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임원 여러분의 헌신과 리더십으로 더 나은 복지 도시를 열어 갈 것이다"면서, "여러분들의 작은 나눔이 모여 큰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김천시민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천복지재단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시민들의 따뜻한 정성으로 15억 원의 후원 금품을 모금했다.

또한 법과 제도의 한계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천형 SOS 긴급지원 사업으로 8천만 원,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을 통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희망복지공동체 지원 사업에 1억 9천만 원, 공공이전기관과 MOU 체결 및 기부자의 지정기탁의사가 반영된 맞춤형 후원 결연사업으로 2억 3천만 원, 복지 차량 지원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주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천복지재단에서는 지난 2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제2대 이사회 임원 임명식 및 김천복지재단 2024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영천시, 클라우드 전환 관련 간담회 개최

클라우드 시스템 관련 의견 교류 2025년 전환 및 구축 컨설팅 등

영천시는 4일 클라우드 전환 시스템 및 신규 구축·전환 예정 시스템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클라우드 전환 시스템 담당자와 신규 구축·전환 예정 시스템 담당자들에게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클라우드 시스템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및 관리 사항과 같은 운영 사항, 2025년 클라우드 전환 및 구축 관련 컨설팅 등이다.

클라우드에 온라인상에서 컴퓨터 자원을 제공하고 관리함으로써 필요한 자원을 즉시 사용하고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클라우드와 같은 신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클라우드 우선 검토 및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담당자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영덕군 '예주복합어울림센터' 신축공사 착공

공연장·북카페·청소년시설 구성



영덕군은 지역주민과 함께 영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예주복합어울림센터' 신축공사에 착공함에 따라 지난 3일 영해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예주복합어울림센터는 영해면 성내리 676-33번지 일대에 1,582㎡의 부지면적에 지하 1층

에서 지상 3층까지 연면적 2,066㎡의 규모로 조성되며,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올해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 내년 12월경 준공될 예정이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엔 55명의 주차 공간이 들어서며, 지상 2층은 공연장, 북카페 등 청소년 시설과 어르신 취미활동 공간 등이, 지상 3층은 회의실, 동아리방, 교육실, 사무공간으로 조성된다.

영덕군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주복합어울림센터 신축공사의 추진계획에 대해 주민들과의 소통에 주안점을 두는 한편, 주변에서 추진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등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조여은 기자

청송군 '심천 최종국 작가 작품 기증식'

한국화대작전 등 단체전 출품



심천(深泉) 최종국 작가는 해인사 정보박물관에서 개최한 '산수와 산문에 들다'를 비롯 10회에 달하는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서울 라메르갤러리에서 개최한 '한국화대작전' 등 다양

한 단체전에 작품을 출품하며 활발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16년에는 국립청송야생미술관에서 초대전 '강좌경승-낙동강 물길 따라'를 개최했으며, 청송을 대표하는 한국화가 야생 이원화 화백과의 오랜 인연이 현재 국립청송야생미술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기증된 작품인 '주왕산 대전사(280×130cm)'는 주방전을 중심으로 주봉과 장군봉 사이에 아련히 보이는 대전사를 배치하여 운치를 더한 실경산수화(實景山水畵)로, 작가의 독창적인 동양화 기법인 일자준(一字畵)으로 초목(焦墨) 작업한 것이 큰 특징이다.

윤병문 기자

영천와인, 와이너리 8곳 연중 시범운영 추진

9월 중 홍보물 제작 예정 와인페스타서 행사 홍보

영천시는 지난 3일까지 영천시농업기술센터 와이너리 8곳 와이너리 체험을 위한 와인투어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총 4회 실시했다고 밝혔다.

본 시범운영은 영천와인사업단이 주최하고 더커피니씨협동조합이 주관하는 2024년 영천와인 와인투어 프로그램 개발 용역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용역을 통해 와인투어 프로그램을 와이너리들의 특색과 고유의 장점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 고도로 체계화된 상품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단장해 시범운영

을 실시했다. 그리고 인근 도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컨설팅을 진행해, 보다 완성도 있는 와인투어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했다. 향후 9월 중에 홍보물 제작을 완성하고, 10월 12-13일 이틀간 열리는 와인페스타에서 와인투어 프로그램 홍보할 예정이다.

와인투어 프로그램 시범운영은 총 4회(8월 6일·13일·20일, 9월 3일) 진행됐으며, 와이너리별로 △까리락골 와이너리 '임제만·김잠숙의 까리락골 농촌체험' △별길 와이너리 '별길 종갓집 와이너리' △우아미 와이너리 '와인에 물들여가는 시간' △오계리 와이너리 '오계리 뮤지엄' △위(we) 와이너리 'We(우) can do it!' △조흔와이너리 '조흔 양조장 카페테리아' △뱅골레 와이너리 '뱅골

레와인스쿨' △블루섬 와이너리 '피부에 와인 꽃을 피우다' 라는 8개의 테마로 운영됐다. 운영 결과, 마지막 회차에는 입소문을 타고 신청자가 수가 대폭 늘어나 인근 도시 와인 애호가들의 눈길을 끌었다.

와인투어 프로그램은 그동안 7월에서 10월까지 운영됐으나 이번 용역을 통해 연중 운영되며, 신청은 영천와인 온라인몰(ywine.or.kr) 영천와인-와인투어-사전에 약하기 탭에서 희망하는 와이너리에 예약 및 문의 가능하다.

영천와인사업단은 "본 사업을 통해 시장 경쟁력 있는 와인산업을 구축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와이너리별 체험 프로그램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세종시교육감과 관내 고등학생 독도 탐방

15개 학교 43명 해안 생태 탐방해 독도 교육 활동과 탐방 매년 추진

최고진 세종시교육감과 관내 고등학생, 교원 등 총 43명이 '2024학년도 체험과 참여 중심의 독도·울릉도 탐방'을 실시했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탐방은 고등학생과 교원이 독도를 보고 느끼며, 대한민국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관내 모든 고등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다. 선정된 참가자들은 평소 우리 땅 독도에 관한 관심과 꾸준한 독도 교육 활동 참여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15개 학교의 대상자 43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탐방은 독도·울릉도의 역사, 인물, 생태를 골고루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1900년 10월 25일 현재 독도의 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울릉도 검찰사이규원이 당시에 울릉도를 조사했던 장소를 중심으로 학생과 교원들이 방문했다.

탐방 첫째 날, 인건교육을 받은 학생과 교원들

은 경북 울진 후포항을 거쳐 울릉도에 도착해 통구미, 태하 대포감, 예림원 등 울릉도의 역사와 생태를 체험했다.

둘째 날, 학생과 교원들은 유람선을 타고 울릉도의 해안생태를 구석구석 돌아본 후 독도박물관, 안동북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나리분지 등을 탐방했다.

마지막 날, 학생과 교원은 울릉도 사동항에서 출발하여 우리 땅 독도에 자랑스럽게 입도하여 'SEJONG ♥ DOKDO'가 새겨진 수건과 현수막을 들고 우리 땅 독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진 후, 울진 후포항을 거쳐 세종으로 돌아왔다.

또한, 학생들은 △독도 콘텐츠 쇼츠 영상 제작 △독도 방문 소감문 작성 △독도 명예 주민 인증 등 독도에 관한 배움을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고진 세종시교육감은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학생들과 함께한 이번 탐방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직접 체험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는 가슴 뭉클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학생들이 생생하게 독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독도체험관을 활성화하고 탐방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영양군의회, 지방의회 청렴 워크숍

영양군의회는 지난 2일, 소속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들의 부패 근절, 윤리 의식 함양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의회 청렴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지방의원의 책임 의식과 청렴도를 제고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구현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 한창희 강사가 맡았으며, △지방의원이 알아야 할 반부패청렴 법과제도, △갑질없는 윤리적 조직문화, 갑질행위 기준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한창희 소장은 "청렴은 강의로만 진행해서 될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청렴을 실천하고, 부패 근절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범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자 양심이며, 군민들의 신뢰를 받는 영양군의회로 발돋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청렴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며, 한편으로는 "모든 의원과 공무원들이 청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청렴한 행정과 의정 활동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권윤동 기자

봉화군, 물품 기부 온기 나눔 릴레이

봉화군은 3일 봉화 군민행복센터 앞에서 추석명절 대비 2024년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 행사를 추진했다. (사)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진행

장육 도의원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등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온기나눔 캠페인 소개 및 후원물품 전달식, 온기나눔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좌)동산이엠에코 현금지정기탁 300만 원 및 70만 원 상당 라면 20박스 등 다양한 후원물품 및 금품이 전달됐다. 전상기 기자



상주박물관 야행(夜行) 상주 역사 알리기 한몫

1박 2일 프로그램 '밤의 박물관' 약 350명 지원 22명 선발 행사

상주박물관은 지난달 31일 상주박물관에서 1박 2일 야행(夜行) 프로그램 밤의 박물관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모집 결과 약 350명이 지원했으며, 이중 상주의 역사 문화에 관심이 있는 22명이 선발되었다. 상주박물관 전통의례관과 경전실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상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밤의 박물관은 토요일 오후 5시에 시작

해 △재즈공연 △전통 등 만들기 △학예사가 들려주는 밤의 박물관 △경전실 야간 탐방 △상주국제송마장 말 먹이 주기 체험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 1박 2일 동안 진행됐다. 저녁 식사와 함께 상주 쌀로 개발한 막걸리 와인도 시음하면서 상주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상주박물관장은 "이번 행사로 한옥 건물인 전통의례관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밤의 박물관을 통해 시민들이 상주의 역사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야행 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상주박물관은 지난달 31일 상주박물관에서 1박 2일 야행(夜行) 프로그램 밤의 박물관을 진행했다.

제10회 예천용궁순대축제 7일부터 이틀간 개최

'순대 커팅식' 이색 개막식 예정 관광객 참여 체험 프로그램 준비

제10회 예천용궁순대축제가 오는 주말인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예천군 용궁면 전통신장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용왕님이 반한 그 맛! 용궁순대'라는 주제로 진행하며 7일 10시 30분 식전 공연(난타공연)으로 시작해 오전 11시에 '순대 커팅식'이라는 이색 개막식이 이어질 예정이다.

개막식 이후에는 안동 MBC '즐거운 트로트 세상' 공개방송이 열려 류지광, 하이랑, 김소유, 서지유 등 국내 인기 트로트 가수들의 무대가

꾸며진다. 이외에도 다양한 공연과 용궁순대 시식행사, 관광객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등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관람객들이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예천군 농특산물 판매장이 마련돼 참기름, 복숭아, 포도, 표고버섯 등 다양한 지역 농특산물을 생산 농가가 직접 판매할 계획이다.

예천 용궁순대는 60여 년 전통을 자랑하며, 깨끗한 마창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추, 파, 참쌀, 한약재 등 십여 가지 이상의 신선한 재료로 직접 만들어 맛이 깔끔한 것이 특징이다.

송명주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 건전생활실천 한마당

회원 700여명 참여해 행사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공유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회는 지난 3일 온누리스포츠펠에서 신한국 문경시장, 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과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등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바르게살기운동 건전생활실천강연회 및 화합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신한국 문경시장의 건전생활실천 강연회를 시작으로,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와 유공자 표창, 화합한마당 행사로 이어졌다.

신한국 문경시장은 강연에서 최근 문경시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고, 제2중앙경찰학교 문경 유치 가지방 소멸 극복의 돌파구가 된다는 물론 문경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하며 문경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위원들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 동참과 협력을 요청했다.

참석한 바르게살기운동 위원들은 범시민 서명운동과 더불어 유치 염원 퍼포먼스에 동참하였으며, 제2중앙경찰학교 문경 건립을 통해 국가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 경찰과 문경시 상호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염원하였다.

손국선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장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문경 발전의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염원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바르게살기운동 위원들의 단결된 의지를 보태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한국 문경시장은 "경찰과 문경시민은 하나"라며, "제2중앙경찰학교를 꼭 유치하여 경찰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찰과 시민이 하나되는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영주시의회 지방소멸 대응 연구회 중간보고회

관련 기금 투자계획 등 질의응답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소멸 대응 연구회'는 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우충무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정숙, 유충상, 김화숙, 전풍림, 김세연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영주시청 담당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용역사로부터 현재까지의 연구 추진결과를 청취한 후, 향후 연구용역 추진 방향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등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우충무 대표의원은 "심각한 영주시의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활용,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멸 대응 연구회'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과 공유오피스 사업 등 우수사례를 견학해 영주시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전상기 기자

의성소방서, 전통시장 10개소 화재안전 간담회

화재발생 위험요인 확인 논의

의성소방서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에 대비해 의성군 전통시장 10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관리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추석 명절은 긴 연휴

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전통시장 상인회 및 점포주들과 화재안전관리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상인회 및 점포주 중심 자율소방대 예찰 활동 독려 △소방서와 상인회 간 협력을 통한 민간 자율안전점검 추진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사용 독려 △전통시장내

화재발생 위험요인 확인 및 사전제거 △에어컨 실외기 화재예방 당부 등이다.

박영규 소방서장은 "전통시장은 특성상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어 상인들의 관심과 자율적인 안전점검이 생활화가 돼야 한다"며 "이번 추석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소방서도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재성 기자

문경 주요 관광지 시티투어 버스 지원 확대

내국인 관련 지원 늘리기로

문경시는 이달부터 2024년 문경 주요 관광지 시티투어 버스 지원사업을 외국인 관광객 모객에 대한 지원 조건을 변경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여 당초 찾사발 축제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국한했던 조건을 내국인 관광객과 동일하게 변경했고 체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 시 지원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을 15명 이상 모집해

위 조건을 충족한 문경 시티투어를 진행할 경우 투어버스 1대당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문경시에서 숙박할 경우 내·외국인 관계없이 기존 지원금에 2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지정 유료관광지도 확대된다.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문경철로자전거, 문경관광사격장 등이 있던 지정 유료관광지에 문경새재 오픈세트장과 문경 오미자 테마터널 2곳도 추가됐다.

본 지원사업 참여 희망 여행사는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여행 7일 전 사전 신청하고, 시티투어 종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투어버스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성중, 경북학교 탁구대회 우승

의성중학교는 지난 1일 영천생활체육관에서 실시된 2024 경북학교스포츠클럽 탁구대회에서 남중부 우승을 거머쥐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인 동아리 활동과 방과후학교 활동으로 탁구 실력을 쌓아온 학생들은 각자의 특기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강력한 협동심을 발휘하여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 운영으로 모든 상대 학교를 제압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의성중학교 우원구 교장은 "학생들의 특기를 살린 교육활동이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다양한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의성중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인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재성 기자

의성군 명절 기간 환경 불법행위 감시

103곳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 연휴 5일 동안 상황실 운영 하천변 불법 야적폐기 감시도



의성군은 추석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취약한 시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특별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추석 연휴 전 13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업소 17개소를 선정해 오염물질 무단 배출,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하고 이와 병행해 103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점검 안내 협조문 발송에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연휴 5일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대비한 상황실과 환경오염 신고·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환경지킴이(42명)'와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1명)이 최근 지속된 폭염으로 수은 상승

등으로 하천과 호수에 녹조 발생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하천변 불법 야적폐기 감시도 강화한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오폐수 무단방류, 쓰레기 불법소각 및 폐기물 불법매립 등 발생 시 환경신문고로 국번없이 1288 또는 휴대전화(지역번호+1288)로 환경훼손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김주수의성군수는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Opinion

신문 및 이 달 라 지 면도 달 라 제 야 합 니 다 대구 광역 일 보 는 독 자 가 숨 까 지 생 각 합 니 다



대구광역시일보
www.dgy.co.kr
등록번호(일간) 대구가 00016
dgynews@daum.net

대표 (053) 253-0000
FAX (053) 253-0041
대구시 중구 태평로286(2층)

발행인 김 영 속
편집인 김 성 용
부사장 조 여 은
편집국장 김 현 석

지역번호 053
대표 257-0000
부사장 254-0400
편집국장 257-0200
경영지원 267-5000
광고국 267-0800
사회부 253-0060
정경부 253-0061
문체부 253-0065
지방부 253-0064
편집부 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칼럼

국민의 소원은 '충성'

이용근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침몰 직전의 여객선 같다. 선장은 외부와 통화하느라 정신없고, 기관실이나 조타실의 선원들은 돌로 갈라져 싸움질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승객들도 구심점 없이 웅기쭙기 모여 무언가 중얼거리며 강 건너 불구경이다.

배가 어떻게 되든, 각자 제 할 말만 한다. 바람이 멋대로 배를 몰아가는 형국이다.

선장이 10여 명 바뀌는 동안 “잘살아 보자”고 외치고, 선원들이 앞장서고 승객들까지 일심동체가 되어 즐겁게 항해하고, 정박하는 항구마다 거래도 활발해 재산이 늘어나니 세간의 칭송이 자자했다.

하지만 내부 갈등은 깊어지고 상처는 깊어갔다.

무임 승선한 붉은 무리를 과감히 하선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역도들이 밖에 있는 적 수괴의 지령에 따라 내부 인재를 과용하고 재물 빼돌리면서 온갖 공작으로 야금야금 세력 키우고, 드디어 주도권 잡고 조타실까지 내놓으라니 모든 것이 뒤죽박죽 혼란스러워진 것이다.

이제는 선장까지 그 색깔을 의심받는 지경이

나아왔을 승객들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 역사는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이다.

앞장서서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는 자도 몇 모르고 나섰을 뿐이지 사실은 본인 스스로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역사다.

그 거대하고 웅장한 흐름을 누가 거역하고 바꿀 수 있나? 하물며 기존의 좋은 질서를 파괴하고 나쁜 길로 끌어들이려 한다면, 하늘이 벌을 내릴 것이다.

힘없는 백성은 기가 막힌다.

꼬여도 보통 꼬인 것이 아니다. 마디를 풀려고 해도 얽히고설킨 타래가 하도 많아 도저히 단칼에 정리할 수 없다.

여당과 야당, 어느 쪽 잘못인가?

이 사람 저 사람, 누가 더 나쁜가? 도무지 저울질이 안 된다.

시점은 분명한 것 같다.

1차는 1990년 '3당 합당'이고, 2차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잡으면 별 무리 없어 보인다.

대다수 국민이 보기에는 죄 많이 짓고 임박·사법 농단하며 장난치는 거대 야당 대표가 당연히 '나쁜 놈' 아닌가? 그런데도 그 자가 저하

나 살자고 부정 선거로 장악한 국회를 방탄막 삼고, 공산주의 입법을 마구 밀어붙이며, 마침내 대통령 탄핵까지 하겠다.

여당은 도대체 뭐 하고 있고, 검사 출신 대통령 자신은 왜 아무 말도 못하는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유망한 우파 후보들을 자르고 좌파 인사들을 대거 영입한 검사 출신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로 출마해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말로 국민을 우롱하지 않았던가?

우파 인사들을 체포하고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그의 전력과 측근들의 좌파적 이념 성향이 낱낱이 드러났는데도 저렇게 높은 지지율로 당선시킨 게 과연 민심일까?

용산 여사의 문자 파동도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 같다.

그들 모두가 바보가 아니면 좌파라는 증거다. 문자 공개나 정체성이 모호한 자와의 통화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정말 몰랐단 말인가? ‘수신제가’를 모를 리 없건만 매번 대통령 도와주는 커녕 탄핵만 거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다.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냐?

세상이 어리숙한 것 같냐?

국민의힘 새 당대표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

간단하다. 거대 야당 대표를 비롯한 범죄 집단과 국정 농단 세력을 강끼리 잡아넣으면 된다. 총선을 망친 책임을 통감하는 한편 본인의 이념을 수성책에 보는 우파가 적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고 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일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그리고 핵심은 선거다.

사전 선거 없애고, 부정 선거 단죄하라! 이게 충성이고 국민의 소원이다.

오늘의 정치 논평

새로운 문화 중심 대구, 간송미술관 개관



오영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대변인

대구 간송미술관이 드디어 그 문을 열었다. 간송미술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사립 미술관으로, 그 설립 이래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하는데 헌신해 왔다.

이번 대구 분관의 개관은 이러한 '문화보국의 정신이 대구에서 새롭게 꽃피우는 중요한 순간이라 할 수 있다. 대구는 국제보상운동의 발상지로서, 그리고 한국 근대미술의 중심지로서 그 위상이 남다른 곳이다. 간송의 정신이 새롭게 뿌리내린 대구가 그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다시 한번 도약하기를 바란다.

아름다운 문화재 전시뿐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와 사회에 미칠 긍정적 영향 또한 기대된다. 간송미술관은 단지 예술의 전당을 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대구 시민들의 문화적 자부심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자산은 대구를 더욱 매력적이고 활기찬 도시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 정책의 원칙이 대구에도 깊이 새겨지길 바란다.

문화예술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성장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 대구시는 간송미술관을 비롯한 지역 문화예술계가 더욱 번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되, 예술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신중한 접근을 취할 것을 당부한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대한민국 문화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대구 시민 모두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는 대구 시민 모두가 함께 이를 성취하며, 앞으로도 대구가 지켜야 할 귀중한 유산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여야 대표, 지구당 부활 합의 환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1일 대표회담에서 지구당제 도입에 합의함에 따라 폐지된 지 20년 만에 '지구당 부활' 가능성이 높아졌다.

1962년 12월 정당법 제정으로 시작된 지구당 제도는 지역 하부조직 활성화와 능동적 민원해결을 위해 시작됐으나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수백억원대의 불법 기업 정치자금 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2004년 폐지됐다.

그러나 지역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현역 의원과 달리 원외 지역위원장의 경우 정치후원금 모금이나 유급직 고용, 사무실 설치할 수 없어 형평성 지적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당원과의 유기적인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해 그동안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원내 지역위원장이 전문한 대구경북 민주당의 경우 모든 부담을 지역위원장이 감당하고 있는데다 상시적인 후원금 모금이 불가능해 선거를 치를 때 마다 큰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지구당 부활이 지역위원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번 여야 대표가 지구당제 도입에 합의한데 대해 크게 환영하는 바이며 향후 지구당 부활에 경북도당이 앞장설 것을 밝힌다.

아울러 기간제된 지구당 운영비용과, 정치자금 불투명, 정경 유착문제 등 과거 지구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선진적으로 지구당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건강소식

여름 지나니 얼굴이 거뭇거뭇

올여름 내리쬐는 햇빛에 얼굴에 점이 아닌 점이 생겨 고민을 하는 이들이 늘었다.

햇빛 등으로 인해 얼굴에 생기는 색소 질환 중 기미는 피부과 의사가 가장 어려워하는 질환 중 하나로 손꼽힌다. 치료를 해도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기미와 싸우려면 가장 먼저 내 얼굴에 생긴 기미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오상호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는 “주근깨, 잡티는 조그마한 점들로 경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기미는 광대뼈 부위에 주로 잘 나타나고 경계를 갖기보단 넓은 형태로 나타나는 과색소 질환”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잡티는 작게는 몇 mm부터 1~2cm 정도의 사이즈로 경계가 명확하고 동그란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미는 작은 경우가 많다. 기미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잘 생긴다. 기미가 생기는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호르몬을 주 원인으로 추측하고 있다. 오 교수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



는 여성호르몬이 기미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다 보니 30~40대 여성에게 잘 생기고 폐경이 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자외선도 기미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오 교수는 “여름에 기미가 악화돼 오는 환자가 많다”며 “다른 부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얼굴에만 생기는데 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미를 없애기 위해선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잡티나 주근깨, 검버섯은 치료가 쉽고 결과도 좋은 편이지만 기미는 가장 흔하게 하는 ‘레이저 토닝’ 치료를 하고도 더 진행되거나 한 번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반복적인 시술을 해야 한다.

오 교수는 “피부과 의사가 가장 어려워하는 질환 중 하나인데 기미는 다른 색소 질환과는 달라서 반복적인 시술로 색깔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치료의 목표”라며 “기미를 없앤다고 단색을 흐리게 한다는 느낌으로 약하게 여러 번 시술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레이저 이외에 다양한 약물 치료도 있다. 오 교수는 “미백제를 사용하거나 피부 관리실에 가면 비타민C 이온 요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며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트레티노익산이라는 약물은 수술 이후 출혈을 막기 위해 혈액 응고를 유도하는 약제인데 기미에 효과가 있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미는 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환자들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치료를 하면 많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치료하라”면서 “또 재발이 많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도전하는 청년

활기찬 노후

꿈을 키우는 아이

행복한 가정

과격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내게 딱 맞는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깜깜한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독자들이 그렇게 원했던 신문이 바로
'대구광역일보' 입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